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 행복 나눔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달 28일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 중 10가구에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이날 NH농촌현장봉사단의 농협 직원과 돌봄도우미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돌봄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촌현장봉사단’은 농업인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대상자 중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생활밀착형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

남원소방서는 지난달 29일, 남원시 아영면 구상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를 개최했다.

구상마을은 소방서에서 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원거리 농촌마을로, 지난 2015년 6월 2일 화재 위험 감소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당시 마을 전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보급해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 전 가구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소방시설의 점검 및 사용법을 다시 한번 안내했으며, 주택 전기 설비와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전기 제품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화재 진압 군민에 '더블보상제' 시행

임실소방서가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불로 번질 뻔한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를 시행했다.

임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 30분 경, 임실군 성수면에 거주하는 홍지경(남/64)씨는 이웃집에 화염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집에 있던 소화기 4대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진압을 실시했다.

이 날 홍 씨의 침착한 대응과 소화기 활용이 대형 화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임실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한 신고자에게 소방시설을 2배로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한동규 서장은 “군민 여러분께서도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 발생 시 홍 씨와 같은 모범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형 기자

김제 죽산면 복지기동대, 고독사 예방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복지기동대(대장 이경근)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인가구 및 집 청소가 힘든 가구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죽산면 복지기동대는 고독사 및 예방관리 사업으로 관내 1인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중 집 청소가 힘든 가구 또는 저장장박증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썼다. /김제=곽노태기자

지식재산 기반 활용 기술사업화 가치 창출 ‘결실’

전북대 송철규 연구부총장, 국회공로장 정보위원장상 수상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이 대학의 연구보안 및 지식재산(IP)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공로장 정보위원장을 수상했다.

송 부총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성과 보호와 연구보안 체계 고도화를 통해 대학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보안 역할을 증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혁신적인 지식재산(IP) 기반을 활용해 기술사업화 가치를 창출하며 전북대학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이 주요 수상 이유로 꼽혔다.

국회공로장은 과학기술 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관했다. 명예이사장인 안철수 의원과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특히, 과학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송철규 부총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업보안 체계 강화와 지식재산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며, “앞으로도 대학기술사업화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21세기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서 과학기술 보안은 산업보안과 연구안보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시상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올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내년 운영 방향 제시... 아동복지 연구결과도 공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지난달 2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도내 아동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군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북지원단은 이날 2024년 주요 성과와 아동복지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도내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삼 축하 메시지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운덕·정동영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도의원, 도내 15개 아동복지기관 및 전북지원단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4명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우수 창작물과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는 16명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의 노력은 도내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주제는 ‘변화 속에서도 지켜가는 따뜻한 돌봄’으로, 변화하는 돌봄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된 기능과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재훈 기자



역아동센터 종사자 14명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우수 창작물과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는 16명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의 노력은 도내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주제는 ‘변화 속에서도 지켜가는 따뜻한 돌봄’으로, 변화하는 돌봄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된 기능과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광주광역시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성료

순창군이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여행사 임원진 30명이 참여해 순창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순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체험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다. 특히 강천산 군립공원, 체계산 출렁다리, 발효테마파크 등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강천산은 겨울철 눈꽃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근의 강천 힐링스파 또한 피로 회복과 휴식을 원하는 모든 연령대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눈길을 끌었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웅장한 경치와 스릴을 동시에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발효테마파크는 순창의 독특한 발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호평받았다. /순창=이양형 기자

2024년 학교행정업무 경감·효율화사업 우수사례 선정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전북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중인 ‘2024년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성과발표회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선정되었다.

2024년 12월 5일 진행된 성과발표회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의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인력 채용 분야, 시설 관리 지원 분야, 맞춤형 인력 지원

분야, 디지털 활용 업무 경감 분야의 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정읍학교업무지원센터는 이 중 인력 채용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서부터 면접, 수업실연 등 모든 절차를 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의 지원범위 확대 사례를 공유하였다.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적극적으로 학교 업무를 지원하였던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다른 기관들의 우수 사례도 참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교사들의 학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기계공고 총동문회 등, 익산시에 백미 기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안성원)와 익산지부 동문회(회장 신원호)는 지난달 29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백미 10kg 200포(4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전북기계공고 동문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기탁품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을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성원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문인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고, 신원호 익산지부 동문회장은 “전북기계공고인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동문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성을 담아 마련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장계농협-천사모, 노인전문 요양원서 김장 봉사

장계농협(조합장 곡점용)은 농가주부모임 천사모(회장 백영남)회원들과 함께 지난달 28일 장수군 노인전문 요양원(원장 장진원)에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첫눈의 내리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천사모 회원들은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올해도 즐거운 마음을 담아 600포기의 배추에 정성을 담아, 센터직원분들과 협심하여 맛있는 김치를 담갔다.

백영남(농가주부모임천사모)회장은 “식물줄 모르는 회원들의 마음처럼맛있는 김치를 드시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준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곡점용 조합장은 “관내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농가주부모임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장계농협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 산동면, 어르신 골절 등 낙상 예방 교육 진행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28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1가구 소통방문과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골절 등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애로사항 청취, 건강상태 확인 등 소통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여 교육과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 좀 더 넓은 의미의 소통방문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낙상 예방법, 낙상 시 대처법, 집안 위험요소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을 안내하고, 실습을 통한 올바른 걷기, 근력강화, 균형 증진 자세, 체조 등을 직접 시범 보인 후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황산면 지사협, 취약계층 27세대 이불세트 지원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준식)가 지난달 29일 관내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에게 극세사 겨울 이불 세트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은 착한가게, 착한가정, 이웃돕기 지정모금 등 면민들이 직접 모은 기부금으로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7세대를 직접 방문해 겨울 이불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준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이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